



불교총지중

총지중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 총지중보

총기 48년

2019년 08월 01일

월간 발행

www.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 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 강남 라00944호 발행인 : 인선(강재훈)

The Chongji News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63년 제 237호

## 화쟁사상처럼 논쟁하고, 하나로 화합해야

7월 26일 청와대, 한국 불교 지도자 초청 대통령과 오찬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불교 지도자 초청 오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문 대통령,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 총지중 총리원장 인선 정사,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 <사진=연합통신>

“불교총지중은 모든 교도들이 한마음으로 나라를 위한 불공을 가장 열심히 하는 종단으로 자부합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등 나라가 어려운 이때에 대통령님께서 국민을 믿고 잘 헤쳐나간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지혜와 용기를 가지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희 종단도 미력이나마 힘을 모아 더욱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지난 7월 26일 청와대 초청,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불교계 지도자들이 참석한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총리원장 인선 정사는 인사말을 통해 호국안민국태민안을 앞장서 지원하는 종단임을 소개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자신 있는 국정운영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

는 문 대통령이 최근 한반도 안보정세의 엄중함 속에서도 정부가 평화체제 구축에 변함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이에 대한 불교계의 지지를 당부하는 자리로 전해졌다. 오찬에는 총리원장 인선 정사를 비롯,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 진각종 총리원장 회성 정사, 관음종 총무원

장 흥과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범해 스님, 대각종 총무원장 만청 스님, 조계종 총무부장 금국 스님,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 회장 원경 스님, 조계종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 조계종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 등 불교지도자 13명이 참석했다. <2면으로 이어짐>

## 총기 48년 하반기 49일 불공 회향 호국안민기원대법회 전국서 봉행



불교총지중 하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이 7월 15일 전국 사원에서 일제히 회향했다. 이어 회향 다음날인 7월 16일 전국 교구 또는 사원별로 호국안민기원대법회를 전국 곳곳에서 봉행했다. 개인적인 정진불공은 더욱 소중하고 소중한 불공입니다.”고 49일 불공의 의미를 설명하고, 교도들의 정진불공에 대해 공과 의미를 부여했다. 서울경인교구(교구장:법경 정사)는

## 인간방생 의미 되살려 정진 불공 공덕 회향 보시금 전액 고성산불지역 복구사업 회사예정

다. 인간방생을 주제로 열린 전국의 호국안민기원대법회는 교도들이 보시한 방생비 전액을 모아 지난 4월 발생한 고성산불지역의 복구사업에 회사될 예정이다. 법공 공령 예하는 해제 법문을 통해 “49일이라는 긴 기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라를 위한 불공과 함께 4대 은혜 보은 불공과 개개인의 서원 성취를 위하여 정진해 오신 승단과 교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며 “한 사람 한 사람의 불공이 모두가 소중한 불공으로 인하여 인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두루두루 공덕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개 스승과 교도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주 딱따구리 청소년 수련원에서 야단법석을 열었다. 또 부산경남교구(교구장: 정인화 전수)는 경남 사천 남일대 리조트에서 스승과 교도 500여 명이 참석하고, 부산경남합창단의 음성공양이 함께 어우러지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충청전라교구(교구장:지정 정사)도 전북 부안 정호수 마을에서 스승과 교도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범하게 봉행하였다. 대구경북교구(교구장: 범상 정사)는 각 사원 별로 사원 밖을 나와 국가 안위를 위한 발원고 조상불공의 원만한 회향을 마무리 하였다. <관련기사 11면>

## 스승이시여, 우리 곁에 큰 빛으로 다시 오소서!

7월 10일 제12대 총리원장 혜암 종사, 22일 전 중앙중의원 불멸심 지수 입적



불교총지중에서 수행과 교화를 한평생 정진해 온 혜암 종사와 불멸심 지수 두 원로 스승의 열반으로 사흘간 각각 장례 절차가 이루어졌다. 혜암 종사(세수 85세, 법남 39년)는 총기 48년 7월 10일 수요일 열반에 들었으며, 경주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장례식장에서 총리원장(장의

위원장:인선 정사)으로 치러졌다. 영결 추선불사는 7월 11일 오후 7시 재무부장 덕광 정사의 집공으로 진행됐다. 49재 불공은 오는 8월 27일 국광사(주교:혜안 정 전수)에서 봉행된다. 불멸심 지수(세수 89세, 법남 45년)는 7월 23일 화요일 열반에 들었다. <2면으로 이어짐>

중/조/법/어

만약 재물 옳게 쓰면 화의 문이 닫힘으로 일체 재물 오게 되고 무량한 복 오게된다

지면안내

2면 대통령 인사말씀

6면 2019 한마음 여름캠프

7면 기획 부처님의 자식교육

11면 호국안민기원대법회, 통신원 소식



## 제39주기 종조멸도절 추선불사

이 땅에 밀교를 꽃 피우신 종조 원정 대성사님의 가르침을 이어 받아 종단 중흥을 위한 역사에 매진 할 것을 다짐하며 추선불사를 봉행합니다.

일시 총기 48년 9월 8일 오후 2시

장소 총지사 원정기념관 / 전국 각 사원 서원당



불교총지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25길 35(역삼동) | T. 02)552-1080~3 | www.chongji.or.kr

(1면에서 이어짐)

또 청와대 측에서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노영민 비서실장, 이용선 시민사회수석, 고민정 대변인, 조한기 제1부속비서관, 박상훈 의전비서관 등이 참석하여, 불교계 지도자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간담회 장소인 본관 인왕실에 들어서자마자 문 대통령은 원행 스님의 인내를 받아 오찬 테이블을 한 바퀴 돌면서 합장과 함께 일일이 인사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저는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불교와 인연은 좀 있다"면서 "젊은 시절 해남 대흥사에서 몇 달 간 고시 공부를 했고 서울 진관동 선림사에서 공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후에도 마음이 어지러울 때면 절을 찾거나 불교 서적을 보는데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낀다"면서 "한국인의 DNA에는 불교 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불교적 인생관이나 세계관이 배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불교의 화쟁사상처럼 논쟁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로 화합한다는 교훈을 얻었으면 한다"면서 "국가가 발전해야 할 방향에 대해 좋은 말씀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산이 높아서 귀한 게 아니라 산에 나무가 있기 때문에 귀한 것이다. 사람이 부유해서 귀한 것이 아니라 덕이 있어서 귀하다(山高故不貴以有樹爲貴 人富而不貴以有德故爲貴)"라고 문 대통령에게 조언했다. 이는 불교 근대화와 독립운동에 힘썼던 통도사 구하 스님의 선시로 국민이 있기에 대통령이 귀하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또 불교계는 40년 간 진행되어 온 한일 불교우호대회에 흥과스님을 단장으로 일본을 방문하여,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등 한일 간 벌어지는 현안에 대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애쓰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아울러 전국 만여 개 사찰에서 종파를 초월해서 8월 1일부터 100일 동안 나라와 대통령을 위한 기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조계종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100일간 올리는 한반도 평화통일과 번영을 위한 불교도 축원은 갈등과 경쟁, 질서와 반목의 암울한 기운을 걷어내고 화합과 상생,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는 기도

다. 화쟁으로 화해하고 한마음으로 민족공동체 정신의 회복을 기원하는 내용이 담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찬 말미 불교계 지도자들은 주요 현안인 문화재관람료 문제와 불교관련 국가법령 제개정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사진=청와대>



<사진=청와대>



<사진=청와대>

(1면에서 이어짐)

영단이 모셔진 경주전문장례예식장에서 역시 총리원장으로 진행되었으며, 앞서 해암 종사와 같은 절차로 24일 오후 8시 추선불사가 이루어졌다.

법회에는 전국의 스승 및 교도, 유가족 100여명이 동참했다. 49재 불공은 오는 9월 8일 건화사(주교:법상 정사)에서 봉행된다. 장의위원장 인선 정사는 조사를 통해 "오늘은 비록 저희들 곁을 떠나 극락정토에 가시더라도 계속하여 종단발전과 깨달음의 저 언덕으로 저희들을 하루 속히 인도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지극한 마음과 정성으로 삼가 영전에 일주향을 사르며, 서방 극락정토 아미타 부처님께 왕생극락을 서원합니다."며 추념했다.

혜암(慧菴) 종사 행장(1935. 11. 2, 경주 출생)

- 1980년 (총기9년) 중앙교육원 아사리과정 수료, 지송급 법사 품수, 건화사 주교로 교화 시작
- 1981년 (총기10년) 제3대 중앙종의회 의원
- 1982년 (총기11년) 제석사주교
- 1983년 (총기12년) 국광사 주교
- 1985년 (총기15년) 제4대 중앙종의회 의원
- 1991년 (총기21년) 통리원 사회부장, 종정자문위원회 위원
- 1992년 (총기22년) 대구경북교구 교구장
- 1994년 (총기24년) 실보사 주교
- 1997년 (총기27년) 총지종유지재단 이사
- 1998년 (총기28년) 출세간이 종사 품수
- 1999년 (총기29년) 부산경남교구 교구장
- 2000년 (총기30년) 제12대 통리원장, 총지종유지재단 이사장, 총지종사회복지재단 이사장, 종림학교관리위원장, 종단협의회 상임이사, btn이사, BBS이사
- 2003년 (총기33년) 기로원 진원
- 2019년 (총기48년) 7월10일 입적

불멸심(不滅心) 지수 행장(1931. 11.17 영일 출생)

- 1975년 (총기4년) 중앙교육원 아사리과정 수료
- 1978년 (총기7년) 청정원 전수 품수, 선림사 주교
- 1981년 (총기10년) 밀인시 대전수 품수
- 1982년 (총기11년) 건화사 주교, 사감부장
- 1987년 (총기16년) 출세간위 지수 품수
- 1989년 (총기18년) 사감위원, 중앙종의회 의원, 대구경북교구장
- 1996년 (총기25년) 제7대 중앙종의회 의원
- 2000년 (총기29년) 기로원 진원
- 2019년 (총기48년) 7월22일 입적

불교지도자 초청 오찬

대통령 인사말씀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각 종단의 큰 스님들, 이렇게 청와대에 모시게 되어서 아주 기쁩니다.

저는 불교 신도는 아니지만 불교와 인연은 좀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고시공부를 할 때 해남 대흥사에서 몇 달 공부한 일이 있었고, 또 진관외동 서울에 선림사에서 한 달 그렇게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마음이 어지러울 때면 이렇게 절을 찾거나 또는 불교 서적을 보면

“제일 큰 어려움은 역시 국민 통합 문제” 국가발전에 불교계가 조언하고, 앞장서길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낀다. 작년 이맘때도 여름휴가를 떠나면서 첫 행선지로 안동의 봉정사를 찾았는데, 당시 6월 말에 한국의 산사 7곳이 한꺼번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국민들께 알리기도 하고, 또 여름휴가철에 외국에만 가지 말고 그런 한국의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사찰도 찾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갔던 건데, 그런 목적과 상관없이 정말 참 좋았습니다. 정말 떠나기가 싫을 정도로 참으로 편안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한국인들의 DNA 속에는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불교적인 인생관, 불교적인 세계관, 이런 것이 아주 짙게 배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에서 늘 교훈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탐진치(貪瞋癡)' 삼독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그런 불교의 가르침은 지금까지 저를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저에게 계속해서 각성을 준 아주 매우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세상이 쉬울 때가 없지만 요즘 또 우리 국민들 아주 힘듭니다. 우선 경제가 힘들고, 다음으로 세계 경제 여건이 좋지 않고, 거기에 일본의 수출 규제까지 더해져서 당

장 현실적인 피해가 생긴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께서 심리적으로 아주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역점을 뒀서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구축, 이 부분은 우리 불교계에서도 북한과의 교류 사업을 많이 해 주면서 정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남북관계나 또 북미관계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아직도 갈 길은 먼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제일 큰 어려움은 역시 국민 통합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기만 하면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있더라도 함께 다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나로 마음이 모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요즘 같은 세상에 국민들 마음이 다 같은 순 없었습니다. 정치적인 생각이 다르고, 또 지지하는 정당도 다르고, 그래서 생각의 차이가 있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국가적인 어려움이 라든지 또는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함께 이렇게 마음들이 모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참 간절한 희망인데, 그렇게 참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 불교의 화쟁사상처럼 논쟁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로 화합하는 그런 교훈을 얻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또 우리 국가가 발전해 나가야 될 그 방향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큰스님들께서 오늘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7월 26일 대통령 문재인

# 인생의 가치를 자각하고 수행에 힘을 주는 불교총지종 「불교총전」

「불교총전」은 총지종 종조 원정대성사께서 현교(顯敎)와 밀교(密敎), 대승(大乘)과 소승(小乘)의 모든 경전 가운데서 그내용을 광범위하게 뽑아 불교전체를 올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통불교적(通佛敎)인 입장에서 편찬하였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양하면서도 체계 있는 불교교과서이고, 불자들에게는 수행의 지표가 되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문의 불교총지종 통리원 및 전국 사원 | 전화문의 02)552-1080

# 불교총지종 승직연찬회, “교화의 새길 열자.”

## 지난 7월 18, 19일 양일 간 청송에서 개최



극적인 참여를 바랐다.

제145회 임시 총의회에서는 지난 7월 22일로 임기가 종료된 안성 정사의 후임으로 법경 정사를 새 사감원장에 인준을 했다. 사감위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또 제 180회 임시 원의회에서는 법계월 기로스승께 침재 조장비 지급을 만장일치로 마음을 모았다. 이와 함께 창종 50주년을 앞두고 종조 원정 대성사 일대기를 발간하기로 결의하고, 추천된 작가로부터 집필계획서가 오는 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연찬회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분임토의 주제는 종령 법공 예하가 직접 주문한 ‘교화의 저해요인과 개선 방안’이었다. 총 4개조로 나뉘어 밤늦게까지 논의가 진행되었다. 결과는 다음날 발표시간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해 법공 종령 예하는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하여 총화했다. 먼저 기대에 부족함이 없는 토론을 한 스승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1. 현재 위치에 대해 냉정하게 비판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 2. 현실에 맞게 과학적으로 적용할 것 3. 필요한 개혁은 과감하게 해야 한다. 4. 교도와의 끊임없는 유대관계를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총리원장 인선 정사는 연찬회를 통해 하반기 49일 불공을 원만 회향하고, 대법회를 잘 마치고 온 전국 스승들에게 감사의 인사말을 전하며, 금번 법회에서 전국 교도들이 보시한 1천만 원을 지난 4월 고성산불지역 복구사업에 희사한다고 밝혔다. 또 7월 들어 열반에 드신 해암 종사님의 예를 들어, 전국 사원에서 49일 간 스승을 기리는 불공을 올릴 것을 주문했다. 다시 전국 사원으로 돌아간 스승들은 오는 가을 강공회에서 다시 모이게 된다.

<청송=박재원 기자>

불교총지종 총리원은 각 사원 주교와 현직 스승이 동참한 승직 연찬회를 지난 7월 18일, 19일 양일간에 걸쳐 청송 대명콘도에서 실시했다. 하반기 49일 불공 회향 후 호국안민대법회까지 마친 후라 다소 피로감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연찬회에 참석한 전국 스승들은 바쁜 일정에 바로 올라왔다.

이번 연찬회에는 종령 법공 예하가 직접 참석하여, 인사말을 통해 그간 스승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분임토의에서 논의될 토론과제를 직접 내어주는 등 시작 초반부터 연찬회의 열기가 고조되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연찬회는 △종령 예하 인사말 △불사법요(법장원 법경 정사) △수계법회 설명(교무부장 승원 정사) △2020년 세계재가불자대회 진행 보고(교육원장 화령 정사) △토론과제 설명(종령 법공 예하) △분임토의 일정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 사이 임시총의회와 임시 원의회가 개최되었다. 두 번째 날은 전날 늦게까지 진행된 분임토의를 발표하고, 종령 예하로부터 총평을 듣고, 산회 전 총리원장 인선 정사 당부의 말로 일정을 마무리 하였다.

종령예하는 인사말을 통해 “금번 연찬회에서는 불사법요의 정리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전제하고, “법장원과 위원회가 준비해온 내용이 이번 자리를 통

해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논의 되었던 내용과 잘 다뤄져서 결실이 맺어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법경 정사가 진행한 불사법요 시간에는 지난 강공회 이후 미흡했던 부분을 수정 보완한 내용을 전체 참석자들과 공유함으로써 새 불사 법요가 마무리 단계임을 선언했다.

현 제19대 총리원 집행부의 정책사업이기도 한 수계법회 관련하여, 교정부장 승원 정사의 발표가 있었다. 오는 10월에 열릴 수계법회는 신도를 총 4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금가사를 수여할 계획이다. 초심자부터 10년차, 10년에서 20년, 20년에서 30년, 30년 이상으로 구분할 것이며, 현재 가사에 대한 시안을 받았으나, 검토 중이다. 아울러 금가사에 대한 디자인 및 운영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요청하기도 했다.

또 내년에 한국에서 10회 째를 맞는 세계재가불자대회에 대해 화령 정사의 진행과정 설명이 있었다. 행사는 2020년 10월 22일(목)부터 4박 5일 간 경주 황룡원과 그 일대에서 개최하며, 여성불자회 사카디타(석가의 딸), 보디미트라 등 재가 단체와의 연대를 꾸준히 해나가며, 이념, 행동강령, 계 등을 현실생활에 맞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또 법경 정사와 상의 하여, 추진위원회를 꾸릴 계획이며, 관심 있는 스승들의 적



신임 사감원장 법경 정사



## 종단협, 성지순례 운남성 계족산 일대 사찰 방문 중국 불교 지도자와 한중 문화 교류 방안 논의도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원행 스님) 소속 22개 종단 대표자들은 지난 21일부터 일주일 일정으로 중국 미북 불교 성지 운남성 계족산과 곤명 원통사, 대리 승성사 등을 순례했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는 운남성 보화사 방장 승화 스님을 비롯한 중국 불교 지도자들과 만나 한중 불교문화 교류 방안 등도 논의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종단협의 성지순례는 한국 미북신앙의 중심지 금산사 출신의 원행 스님이 장소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지순례에는 불교총지종 총리원장 인선 정사를 비롯,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 진각종 총리원장 회성 정사, 관음종 총무원장 흥과 스님, 종단협 사무총장 지민 스님 등이 참여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지난 2013년부터 해마다 회원 종단 간 화합과 우의를 다지는 해외불교 성지순례를 이어오고 있다. 한편 참석자 중 불교총지종 총리원장 인선정사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 등 종단협 회장단은 지난 7월 26일 청와대 오찬 행사 참석을 위해 일정을 앞당겨 24일 귀국했다. 이에 따라 종단협 사무총장 지민 스님이 현지 방문단을 이끌고 옥룡실산 등을 순례한 뒤, 남은 일정을 마친 후 27일 예정대로 귀국했다.



## 진각종 새 총인에 경정 정사 추대 총인추대위원회서 선출, 8월 1일 임기 시작

진각종 제13대 총인에 경정(敬淨) 정사가 추대됐다. 진각종 총인추대위원회는 7월 25일 오후 2시 서울 총인원에서 회의 를 열고 경정 정사를 추대했다. 이날 인의회 의원과 총리원장, 종의회의장, 현정원장, 교육원장으로 구성된 총인추대위원회에서 투표선출 방식에 의거해 경정 정사를 5년 임기의 총인으로 추대했다. 임기는 8월 1일부터이며, 범통승수식을 거행한 후 직무에 임하게 된다. 경제 13대 총인으로 추대된 경정 정사는 동국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인도 델리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어 진선여중 정교, 행원심인당과 상륜심인당, 불승심인당, 신덕심인당 주교와 대전교구청장, 교육원 교법부장, 위덕대 불교학과 교수, 박물관장, 대학원장, 밀교문화연구원장, 교육원장 등을 지냈다. 2005년 4월 종사행계를 품수했다.



경정 정사

### 부고

실지사 보현 전수 부친(덕광정사 빙부)께서 열반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합니다.

열반일 2019년 7월 29일(월) 빈 소 포함시민정례식장 특3호실  
발 인 2019년 7월 31일(수) 오전9시 장 지 포함시립화장장

## 불교총지종 불교용품



호신다라니(차량형)금색  
길이 18cm  
₩ 20,000



호신다라니(차량형)은색  
길이 18cm  
₩ 20,000



호신다라니(차량형)엔틱  
길이 18cm  
₩ 20,000



호신다라니(장엄형)금색  
길이 30cm  
₩ 50,000



호신다라니(장엄형)은색  
길이 30cm  
₩ 50,000



호신다라니(장엄형)엔틱  
길이 30cm  
₩ 50,000



### 법상인 전수의 總持法藏

## 법신, 화신

법신불은 본래 있어 보리심에 비유하고, 화신불은 닦아나니 보리행에 비유한다. 법신불이 중생 위해 당신이 곧 화신되니, 법신 부처 이밖에는 다시 부처 없는지라. 법신불은 태양 같고, 화신불은 만월 같다. 그러므로 법신명호 비로자나 대일이라. 밀교 분신 양인교로 현세정화 위주하며, 밀교본신 양을 쓰고 일요자성 날을 한다. 현세 안락 서원하여, 이 땅 정토 만들므로, 진호국가 서원으로 자기 성불하기 위해, 식재증의 경애항복 사중법을 수행하니, 국민 모두 안락하고 국토 모두 성불된다. 이것이 곧 오는 세상 몇 천겁을 기다려서 성불함이 아니므로 즉신성불이라 한다.

<종조법설집 P123~124>

시방 삼세에 두루 하시는 부처님 모습을 불교 교리에서는 삼신설(三身說)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삼신이란 법신(法身), 보신(報身), 화신(化身)을 말합니다. 법신의 법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이전에도 그리고 열반에 든 이후에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변함없이 존재하는 진리,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모든 중생은 형상을 통해서만 분별하고 집착합니다. 형상 없는 법신을 중생은 알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신은 영원불변하고 유일한 법을 부처님으로 형상화한 것입니다. 보신은 법신과 같은 덕목들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중생의 간절한 서원에 따라 중생 앞에 나타나기도 하고, 내생에 그 중생을 제도하기도 하는 부처님이 보신불

입니다. 화신은 보신과 같이 본래 법신의 부처님이지만 중생 제도를 위해 중생의 몸으로 바꾸어 직접 중생의 세계로 오신 부처님을 말합니다. 따라서 보신불과는 달리 중생은 현생에서 화신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분이 바로 화신의 석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비로자나불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신의 이름이며, 원만보신 노사나불은 보신, 천백역화신 석가모니불은 화신의 이름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성품과 행위 나투심을 세 가지로 구분한 것

### 부처님의 성품과 행위로 달리 나투신 부처님 명호 비로자나, 원만보신 노사나, 천백역화신 석가모니

입니다. 결국 본체는 하나인데, 체가 다르게 작용을 하여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습에 따라 달리 표현을 한 것입니다. 종조님께서는 본래의 진리, 그 자체를 보리심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보리심은 본심이며, 불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신은 형상이 없으므로 중생제도를 위해 화신으로 오시므로, 보리행으로 비유하셨습니다. 또 법신불과 화신불을 해와 달로 설하셨습니다. 태양으로 인해 달이 나오고 빛을 받는다. 태양이 없으면 달이 없다는 우주의 이치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본디 대일어래는 태양의 부처(비로자나 음역, 대일(大日)님)이십니다. 태양은 양이며, 달은 음, 현세는 양이며, 내세는 음입니다. 그리하여 밀교는 사후세계도 중요하지

만 살고 있는 현세를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종조님이 대양(대일)의 부처님을 섬기는 의미로 자성일을 중심으로 우리 종단은 현교와 다르게 모든 불사를 양력으로 지내도록 하신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대중의 정서에 맞춰 사월초파일만 음력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세를 매우 중요시하기 때문에 현세 위주의 수행법을 통해 재난도 없어야 하며, 구하는 게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소구여의 불공

을 합니다. 현교는 수억 겁을 닦아야 부처가 될 수 있지만, 양의 법신불이 교주이므로 우리는 현세를 닦아 성불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교와 밀교사이에 보리심과 행위 육바라밀에 있어서나, 부처님의 과위(果位)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과위에 이르기 위한 방편에 있어서는 현교와 밀교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즉신성불과정은 매우 어렵습니다. 어느 날 깨쳤다 하여도 그것은 온전한 증득이 아닙니다. 보림(保任)은 깨달아 부처가 된 이후의 수행을 말합니다. 깨친 후에도 과거 업이 사라지지 않으므로 자기의 몸과 마음을 면밀히 살펴서 게을리 하지 않는 수행을 하여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 스승 찾기와 스승 되기

그 때 그 때 상황에 걸맞게 소임을 실행하고 있는 우리들 스승도 되고 제자도 되어 각자의 아름다운 모습 가꿔가야

어릴 적에는 참 존경해야 할 분들이 많았다. 선생님들의 말씀을 통해 얻어 듣거나 위인전에서 읽은 위인들은 참 대단한 분들이라는 느낌을 줬다. 그러나 오늘 우리 사회에는 과연 그처럼 존경을 받을 만한 분이 계시는가. 이념이나 진영을 떠나 진실로 존경받는 사회 원로, 양심 바른 정치인, 공직자들이 있는가. 사회는 발전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 개개인의 삶은 얼마나 발전했는지 돌아볼 일이다.

존경하고 싶어도 존경할 인물을 찾기 어렵다면 안타까운 일이다. 어느 스님이 울지 못한 스승의 특징을 13가지를 들며 자신은 이 중 10가지나 해당한다며 스승이 되기는 멀었다고 고백했다. 물론 겸손의 말씀이시다. 그래도 우리는 각자 몇 가지가 해당되는지 자신을 살피는 거울로 삼자는 뜻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해 본다. 다른 전통이나 스승을 비난한다. 나만 따르고 한다. 본인이 깨우쳤다고 한다. 수행체력과 수행능력을 자랑하며 뽐나고 하고 신비스러운 것을 강조한다. 본인 제자가 되라고 한다. 화를 잘 낸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 법맥이 없다. 자비심이 없다. 자기이의, 자기단체, 자기이름만 생각한다. 하심이 없고 오만하다. 수행이력이 약하다. 계율을 잘 지키지 않는다.

이상은 우리 주위에서 적잖이 볼 수 있는 모습들이지만 무엇보다 스스로의 내면을 속속들이 비추는 것 같아 부끄럽기까지 하다. 특히 두 번째 '나만 따르라' 하는 부분을 주목해 본다. 어디를 가든지 주변에는 자기만 옳다는 분들이 많지 않은가 싶다가도 시선을 돌려 스스로를 살펴보면 그 안에 또 어김없이 큰 아상(我相)이 파리를 틀고 있어 한없이 부끄러워진다.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결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다. 지혜를 깨닫게 해주셨고 자비로 보듬어 주셨다. 특히 당신의 말씀이라도 무조건 따르지 말고 곱씹어 따져서 옳다는 확신이 들 때 따르라 하셨다. 세상에 이런

지도자가 있다니. 전혀 권위주의적으로 압박하려거나 명령하려 드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지혜와 자비가 구족한 분이 아니면 그러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에 더욱 부처님을 존경해 마지않게 되는 것 같다. 기준을 너무 높이 잡았나 싶어 존경할만한 분의 범주를 바꿔보기도 한다. 꼭 영웅처럼 거창한 이가 아니라 삶의 현장 곳곳에서 묵묵히 할 일을 해내는 분들이야말로 우리가 진정 존경해야 할 분들이 아닌가 하고, 그리고 보면 곳곳에 존경한 만한 분들이 상당히 계심을 또한 알 수 있다.

사실 사람은 누구도 완벽할 수 없다. 따라서 각자가 상황 속에서 딱딱 그에 걸 맞는 소임을 필연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그 자체로 존경받아 마땅할 것이다. 그래서 때로 잘된 일을 칭찬도 하고 부족한 일을 반성도 하면서 하루하루 향상일로를 걸어간다면 그 또한 한 판의 연기적인 인생이요 하나의 공동체가 아닐까 싶다.

어릴 적 '큰 바위 얼굴'을 읽으면서 어느덧 자신이 닮고자 했던 큰 바위의 모습처럼 인격을 갖추게 된 에니스트의 모습을 떠올린다. 닮고 싶은 그 아름다운 마음이 결국은 결실을 맺는 데서 가슴 뭉클하게 다가온다. 이는 우리에게도 희망이다. 우리 내면에 그러한 능력이 갖춰져 있고 그 능력을 계발하면 똑같이 도달할 수 있는 곳이라고 믿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서로서에게 거울이다. 자신의 모습을 알려면 거울에 비춰보듯 다른 사람의 지적을 살펴보면 알기 쉽다. 지적을 해주는 것은 참 고마운 일이다. 사랑이 없으면 지적을 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에 때론 기뻐하고 때론 반성하며 아름다운 자기 모습을 가꿔가야 한다. 서로서로 스승을 알아보고 스승이 되어 스승도 되고 제자도 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김봉래(BBS불교방송 보도국 선임기자)

### 내 마음의 등불 5

단음사 수현 정사편

#### 관심일법 총섭제행(觀心一法 總攝諸行)

헤가 스님이 달마대사에게 물었다.  
“도를 얻고자 하면 어떤 수행을 해야 합니까?”  
“마음을 관찰하는 한 가지가 모든 수행을 다 포함한다 (觀心一法 總攝諸行).”  
헤가 스님이 다시 물었다.

“어째서 마음 관찰이 모든 수행을 다 포함합니까?”  
“마음이 만법의 근원이므로, 모든 행위가 마음에서 일어난다. 그러므로 마음을 깨달으면 만 가지 수행을 다 갖추는 것이다. 모든 현상이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마음밖에 따로 구할 도(道)가 있다면 옳지 않다.”

'내 마음의 등불'은 스승님들이 평소 마음에 새기고 계신 지혜와 말씀을 릴레이식으로 소개합니다. 단음사 수현 정사편은 다음 주자로 정자사 남해 정사편을 지목하셨습니다.

## 불교총지종 불교용품



가정본존다라니(금색)  
13.5x17x3cm  
₩ 50,000



가정본존다라니(엔틱)  
13.5x17x3cm  
₩ 40,000



가정본존다라니(액자)  
14x19x1.5cm  
₩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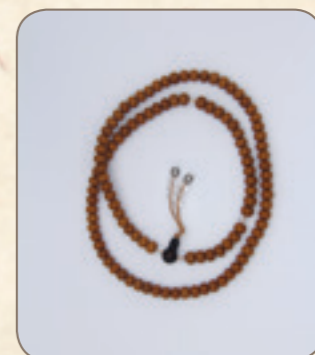
호신다라니(지갑형)  
4.2x5.8cm  
₩ 3,000



보리수 108염주  
₩ 10,000



편백염주 108염주  
₩ 10,000



찔보리수 108염주  
₩ 40,000



발교경전 읽기 26

원당정사

『대승장엄보왕경』은 관자재보살의 중생구제의 위신력을 설하면서 육자대명다라니를 함께 설하고 있으며, 관음보살에 밀교적 요소인 다라니를 결합한 밀교의 관음신앙을 설하고 있는 경전이라고 볼 수가 있다.

관음신앙은 중생이 괴로움을 받고 있을 때 관음보살의 이름을 일심으로 부르면 그 음성을 관하

## 『대승장엄보왕경』을 마치며 ①

에서 힌두교의 자재천(Isvara)을 수용하여 관음보살의 특징으로 나타낸 것이라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자재신적인 특징은 『대승장엄보왕경』에서 관음의 20응신으로 나타나고, 지옥·아귀·축생·수라·인간·천상의 육도의 중생을 구도현신하는 모습으로 설하고 있는데 이를 육관음의 변화 관음으로 대비하여 해석하였다. 이러한 특징은 관음신앙이 현세적 이익의 성취뿐만 아니라 내세구제신앙과 천도의 역할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관음신앙이 내세의 이익성취를 나타낸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또한 관자재보살의 중요한 성격은 육자대명다라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이 『대승장엄보왕경』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육자대명다라니는 ‘옴마니반메훬(Oṃ maṇi padme hūṃ)’의 6자로 이루어진 진언구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진언을 설하고 있는 경전으로 『대승장엄보왕경』과 『마니카름』이 있다. ‘옴마니반메훬(Oṃ maṇi padme hūṃ)’은 “옴, 연꽃속의 보주시여(또는 연화상보살의 보주여)! 원인(생노병사 등의 고통)이 되는 업을 멸해주소서.”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옴 우주(Oṃ)에 찬탄한 지혜(maṇi)와 자비(padme)가 지상의 모든 존재에게 그대로 실현되라. (hūṃ)”는 뜻으로 상징의미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육자대명다라니의 지송으로 관자재보살의 대위신력과 대비원력으로 중생들을 고난과 액난에서 구하고 소원을 성취시켜 해탈하도록 하는 시간적 이익의 성취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경전에서 설하고 있다.

### 관자재보살 명호 역념, 극락으로 인도

여 모두를 고난과 액난의 두려움에서 해탈케 하여 준다고 믿는 신앙이다. 또 대승경전에서 관음보살은 구구구난의 대서원을 세운 보살이며 보문시현의 위신력을 지닌 보살임을 강조하고 있다.

먼저 관자재보살은 중생을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대위신력을 지닌 시무외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대승장엄보왕경』에서 나타난 관자재보살은 Avalokiteśvara를 번역한 말로 자재적인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밀교

는 근거이다. 또한 관자재보살은 이름이 보살일 뿐 이미 과거겁전에 성불한 부처이며, 법계에 상주하는 법신불로서 중생을 구제하기위한 대비방편으로 보살의 몸을 나타낸 것임을 『대승장엄보왕경』에서 설해진 여러 근거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또한 관자재보살의 명호를 역념하면 중생들을 극락으로 인도한다고 하여 관자재보살을 아미타부처님의 화현으로 보아 아미타부처님과 동일시하여 한 몸으로 보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다.



연방아로 17

법상정사

죽음이란 무엇인가? 역사의 새벽, 인류는 '생각'의 첫머리에서 이 문제와 맞닥뜨렸을 것이다. 종교와 철학 그리고 모든 문명의 시발점에 이 문제는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적 지식이 극대화되고 분조를 닦아 정리가 쏟아지는 오늘날에 와서도 이 문제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결말을 짓지 못하고 있다.

대개의 학자는 죽음이란 “한 생명체의 모든 기능이 완전히 정지되어 원형대로 회복될 수 없는 상태”라는 데에 동의하지만, 단서를 붙이는 것을 잊지 않는다. “삶이란 이런 것”이라고 확실하게 규명하지 않고는 죽음에 대한 완전한 해답은 있을 수 없다”고도 하고, “죽음의 세계란 인간의 경험 영역, 지각 영역을 넘어서는 차원의 문제에 속하기 때문에 그 본체를 파악하기란 불가능하다.”고도 한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해석에 특히 자기 식의 독단을 많이 개입시킨다. 각자 자신의 안경을 통해 죽음을 보는 것이다. 죽음에 대한 통일된 답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죽음이라는 것이 그만큼 인생에서 중대 문제이고, 누구나 한번은 겪어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이며, 또 그것으로 모든 것이 종말을 맞이하

## 죽음이란 무엇인가 ①

기 때문이다.

생물학자들은 삶과 죽음의 구분에 고심한다. 생물계에는 단세포 생물도 있고 다세포 생물도 있어서, 생사를 가능하는 기준을 일정하게 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고등 동물인 인간의 죽음을 판정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다. 일반적으로 심장 고동과 호흡 운동의 정지를 표준으로 삼지만 가사상태(假死狀態)인 경우도 있고, 한 때 멈추었다가 기적적

“가끔 죽음에 대해 생각을 돌려라. 그리고 미구에 죽을 것이라 생각하라.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가를 그때가 아무리 번민할 때라도 밤이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 번민은 곧 해결될 것이다. 그러하여 의무란 무엇인가, 인간의 소원이란 어떤 것이어야 할 것인가가 곧 명백해질 것이다. 아아, 명성을 떨쳤던 사람도 죽고 나면 이렇게 빨리 잊혀지는 것일까!” 그리스의 비극 시인인 소포클레스의 말이

### 종교와 철학 그리고 모든 문명의 시발점

으로 다시 살아나는 경우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죽음의 형태도 가지각색이다. 천수를 누리고 기력이 쇠진하여 저절로 여러 기능이 멈추는 자연사가 있는가 하면, 아직 청장한 나이에 뜻하지 않은 원인이 생겨 죽음을 맞는 우연사도 있다.

우리나라 사람은 예로부터 '오래 사는 것(壽)'을 가장 큰 행복으로 삼았고, '제 명대로 살다가 편안히 죽는 것(考終命)'을 오복의 하나로 꼽았다. 인간을 '죽음으로 향하는 존재'라 규정한 철학자도 있고, '산다는 것은 무덤을 향하여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소설가도 있다.

다. 이를 받듯이 몽테뉴(Montaigne, M.)는 그의 '수상록(隨想錄)'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어디에서 죽음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다. 곳곳에서 기다리지 않겠는가! 죽음을 예측하는 것은 자유를 예측하는 일이다. 죽음을 배운 자는 굴종을 잊고, 죽음의 깨달음은 온갖 예측과 구속에서 우리들을 해방시킨다.” 어쨌든 사람은 죽지 않으면 안 되고 단 한 번 혼자서 죽는다. 그리고 그것은 삶의 끝막음이다. 어느 누구도 피하지 못하고 거부하지 못하며 전진으로 맞이하여야 한다. 이러한 죽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의문은 다시 되풀이 된다. (계속)



도현 정사

## 당신의 모든 성공과 실패, 당신 생각의 직접적 결과물이다.

우리는 자신의 목소리를 이용해 자신을 놀라게 만들지 못한다. 스스로 비명을 내지 수도 있고, 고향을 지를 수도 있고, 분노할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의 목소리에 겹을 겹어 먹거나 공포스러워 하지 않는다. 이는 그 소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각의 경우 다르다.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 1842-1910)는 “생각은 우리 경험의 창시자다”라고 했다.

삶의 모든 경험과 인식은 생각에 근거하고 있다. 생각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식 기능 가운데 가장 앞설 뿐 아니라 자동적으로 지속되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기능보다 근본

롭히는 것은 그때의 실수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생각 때문이라고 말해준다면 그는 아마도 징색을 하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 일을 생각하며 내 자신을 책망하고 우울해 지는 것은 그때 내가 실수를 했기 때문이요, 내가 그 일을 생각하고 있어서가 아니요. 더 이상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내가 실수 했다는 사실 때문에 자책감이 들어 우울할 뿐이지요.” 라고 대답 할 것이다.

가령 “오늘 왜 기분이 나쁜가?” 라고 누가 물었을 때 “친구 때문에 기분이 상했어.” “오늘 따라 재수가 없었어.” 등의 대답을 한다면 이 사람은 외부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는 것이다. 즉 자기 생각의 표출인 감정을 자신 이외의 사

##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모든 것은 마음 작용 美심리학자 제임스, 생각은 우리 경험의 창시자

적이고 자연스럽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이 주체적으로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나 생각이라는 것은 분명 인간이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생각은 우리의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본 것을 결정하는 것이다.

생각이 주체적이라는 인식을 못할 경우 이른바 '생각의 부작용'에 빠진다. 은퇴를 앞둔 어느 프로 야구선수가 아주 중요한 마지막 경기에서 자신의 실수로 팀의 승리를 날려버린 경우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아마도 그 선수는 은퇴 후 몇 년 동안, 어쩌면 평생 동안 자신의 실수를 되씹고 또 되씹을 것이다. 그리고 그 상황을 생각할 때 마다 스스로 “그런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하다니 난 참 바보였어.”라고 자신을 책망할 것이다.

이런 경우 이 사람은 불행하게도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의 주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자신의 생각이 고통의 원인이 되는 사실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만약 누군가가 그 운동선수에게 당신을 괴

람이나 환경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순간순간 생각의 주체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과 삶의 경험을 지배하는 것이 주변의 외부 환경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불행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는 것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때때로 그렇게 하는 순간 스스로의 삶에 대해 무력감 외에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들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들의 생각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자. 그래서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의 원인이 자신의 생각이라는 사실을 깨닫자.

불교에서는 이를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모든 것은 마음 작용이 한다.

### 총지종보 / 위드다르마

구독문의 | 총지종 종보실  
02-552-1080~3

## 그때 그 시절

### 제1회 어린이 수련법회

총기 23년(1994년) 8월 11일~12일(1박2일)

기간: 총기 23. 8. 11- 8. 12

장소: 대전만보사

참석: 국민학교 전 학년

### 제2회 어린이 법회(제2회)

총기 24년(1995년) 8월 1일~2일(1박 2일)

장소: 온양 '총무수련원'

주제: 부모님께 효도하는 어린이가 됩시다.

참가인원: 120명 (어린이 9명, 성인 29명)

### 정각사 본당 기공식

총기 24년(1995년) 8월 4일(금), 오후 2시

정각사 본당 신축 기공식 및 본존 이안 불사

주교 정정심 전수 집공하에 거행

본당 건물 대지 8백 33평, 연건평 6백 60평(지하 1층 지상 3층)

### 총지불교대학 개강

총기 25년(1996년) 6월 19일~8월 28일

대상: 불교에 관심 있는 모든 불자

장소: 총지불교대학 2층 반야반 교실 (분산 법장원 건물내)

시간: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 12시 30분 (90분간)

수강료: 무료 (제 1기에 한함)

강좌를 수료한 분에게는 수료증을 드리며 총지불교대학 정규과정 입학 시 특전

### 경로수련법회

총기 29년(2000년) 8월 14일~16일(2박 3일)

대상: 서울, 경기, 대구, 경북·충청, 전라, 교구·신행이 단독한 종단교도 연령 65세 이상의 보살, 각자님.

장소: 괴산 수련원

참가자: 보살 124명, 각자 15명, 자원봉사 27명

행사주요내용: 8월 14일 15:00 수련장 도착, 17:00 입제식, 19:30 연예인 공연  
8월 15일 10:00 외부강사 강의, 15:00 장구팀공연, 19:30 장기자랑  
8월 16일 8:00 회향식, 10:30 총주호 관광(장화니루터 출발)

# 청소년이 행복한 시간, 한마음 여름캠프 개최

## 전국서 150여 명 참여, 무더위 이겨내며 참된 나 찾기



2019년도 '한마음 여름캠프'가 지난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2박 3일간 전국에서 총 150여 명의 학생들과 지도 교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용인 에버랜드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캠프는 불교총지중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제6회 청소년 바른인성 형성프로그램 '참된 나를 찾는 여행'에 참여해온 청소년들과 캠프 참가를 희망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첫날인 29일에는 오후 2시부터 교무부장 승원 정사의 집공으로 입제식을 시작하여, 여름스포츠 활동을 통한 심심단련의 시간을 가졌다. 다음 날인 30일에는 놀이를 통해 야외 단체 활동으로 나눔과 배려를 통해 협동심을 기르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마지막 날에는 '참

된 나를 찾는 여행' 참석자의 활동 보고를 하고, 다른 팀과의 여행 공유를 하였으며, 시상식으로 캠프를 마무리하고 회향식을 마쳤다.

입제식에서 통리원장 인선 정사는 "캠프를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특히 언제 어디서나 안전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참된 나를 찾는 여행"을 총괄해온 김평석 회장은 "이 행사는 팀원 상호간의 소통은 물론 행사를 통한 리더십을 키우고, 진정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을 기르는 데에 목적을 두고 시행중이다."면서 "바른 인성을 형성으로 훌륭한 사회인으로 자라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취지에 관해 설명했다.



### 참된 나를 찾는 여행을 다녀와서

####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것이 뭔지 알았어요." 하루에 30분 이상 나의 꿈을 위해 공부할 것

심윤섭(동해중학교 1학년)

지난 5월 25일 나와 허준, 광고, 경민, 석준, 재윤 그리고 김재만 선생님과 함께 경주로 '참된 나를 찾는 여행'을 떠났다. 우리는 아침 9시30분에 학교에서 만나 김재만 선생님 차를 타고 1박2일을 여정을 시작했다.

우리는 맨 처음으로 대릉원(천마총)에 갔다. 여러 개의 큰 대릉들이 생각 외로 커서 놀랐고, 천마총 안은 들어가자마자 시원해짐을 느꼈다. 대릉의 역사가 한 눈에 들어오는 듯하여 좋았다.

이어 점심식사 후 점심대와 국립경주 박물관을 방문했다. 신라시대 여러 유물과 역사를 알 수 있어서 좋았고, 국립경주박물관을 상징하는 캐릭터를 도장으로 찍는 활동이 매우 재미있었다. 첫날 마지막 장소인 동궁과 월지를 한 바퀴 돌며

야경을 보았는데, 역시나 말로만 들던 대로 참 아름답다고 예뻐했다. 다음날 오전 방문한 석굴암은 내가 어렸을 때 간 곳이라 별로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막상 가서 보니 조금씩 생각이 났다. 거대한 석굴암을 보니 가슴이 탁 트였다.

나는 이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것이 역사, 생물, 지연, 운동이라는 것을 원래보다 더 깨달은 것 같다. 앞으로 나의 꿈은 수의사, 국립공원 산장, 역사(유물)발굴단과 운동(야구) 선수다. 앞으로 이 여행을 통해서 알게 된 나의 꿈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그 꿈을 더 알아가야겠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하루에 30분 이상 나의 꿈을 위해 공부해야겠다. 이번 여행이 나는 아주 좋았고, 만족한다.

#### "템플스테이를 잘 끝낸 아이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골굴사 '선무도' 배우기, 함께 일손 돕기 '울력'도

김다현(장성의 아이들' 팀 멘토)

저는 포항 장성초등학교 4학년 조윤재 엄마 김다현입니다. 불교총지중에서 주관하는 '참된 나를 찾는 여행'에 신청하여, 아들 친구들인 포항 장성초등학교 5학년 김현재, 4학년 김연우, 3학년 김도현 학생들 네 명과 함께 경주 골굴사로 템플스테이를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에게 템플스테이가 어떤 체험인지 알려주고, 멘토로 참여한 저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첫날은 선무도 공연을 시작으로 다른 절에서 볼 수 없던 '선무도'라는 불가의 전통비전 수행법을 관람하고 배웠습니다. 또 '울력'이라고 함께 일손 돕기를 하였는데, 다음날 비가 온다고 해서 수로의 낙엽을 쓸어내 답았습니다. 아이들이 처음 큰 빗자루에 신기한 듯 신이 나서 청소를 하다가 흠이 나기도 했습니다. 저녁공양을 했는데, 집과는 다른 반찬에 아이들이 놀란 눈치였으나, 배가 고팠는지 깨끗이 먹고, 자기 그릇도 스스로 설거지를 했습니다. 잠깐의 휴식 후 산사의 야외에서 절하는 법을 스님께 배웠습니다. 또 저녁예불을 통해 기도를 하고 명상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마음이 차분해짐을 느꼈습니다. 선무도 수련을 한 시간 수련해보았는데, 잘 따라하는 아이들이 참으로 흐뭇했습니다. 다음날 우천으로 건

기 명상 대신 스님과 차담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은 통역하시는 분과 스님 두 분과의 차담은 아이들과 멘토인 저로서도 가장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궁금한 점을 묻고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녀와서도 가끔 절에서 배운 절을 하는 아이들을 볼 때면 새롭고, 뜻 깊은 1박 2일의 시간이었음을 다시금 느낍니다. 좋은 기회를 주신 불교총지중과 수인사 주교 법일 정사님께 깊은 감사함을 드립니다.



### 수계사 교도

# S-OIL 현곡주유소



# 착한가격! 좋은품질! 정품정량!

- 대표** 최병철
- 주소** 경북 경주시 현곡면 하구리 1242-58
- 전화** 054-745-5804 / 054-745-3083
- 핸드폰** 010-2877-6137

부처님의 십대제자  
지혜제일 사리푸트라 존자(3-2)

# 목련존자와 함께 앗사지 만나 부처님께 귀의

화령 정사(불교총지종 중앙교육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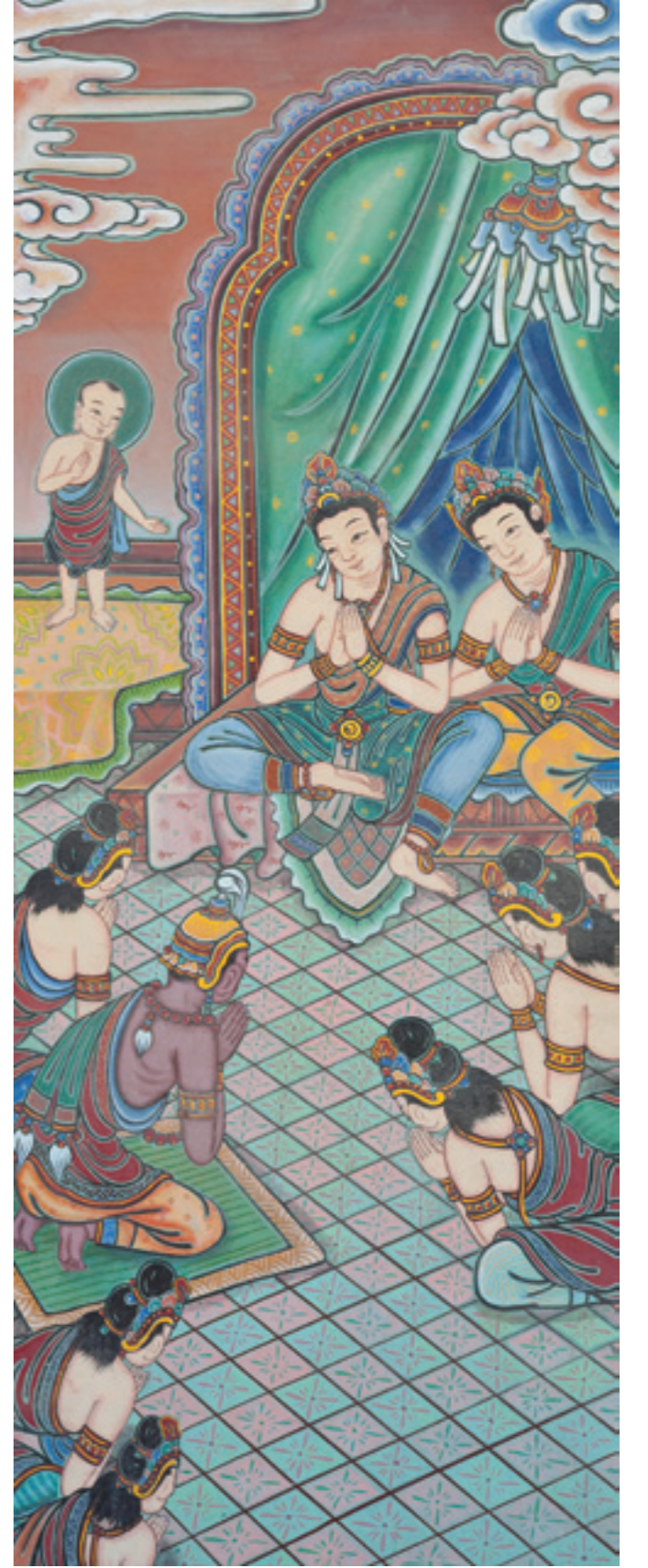
세상에 아라한이 있다면, 아라한의 도를 갖춘 자가 있다면 바로 저 비구도 그 중의 한 분일 것이다. 그는 누구에게 출가했으며 누구를 스승으로 모시고 누구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가를 물어봐야겠다.

사리푸트라라는 어릴 적부터 총명하고 비범하여 논쟁에서는 그를 당할 사람이 없었다. 소문난 논사인 자기 아버지가 조차도 사리푸트라에게는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다고 한다. 사리푸트라는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면으로 너무나 뛰어나 어지간한 사람들은 그를 당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 그러나 사리푸트라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훌륭한 스승을 만나 학문을 넓히고 싶었다. 그래서 여러 스승을 찾아다닌 끝에 산자야 벨라티푸타(Sanjaya Belatthiputta)라는 사람을 만나 스승으로 모셨다. 이 사람은 육사외도의 한 명으로 거론되는데 부처님 당시에는 나름대로 유명한 사상가였다. 그는 그 당시 가장 큰 나라였던 마가다국의 수도 라자가하(왕사성) 근처에 250명이나 되는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었다고 한다. 산자야의 주장은 절대 진리라는 것을 있을 수 없으며 또 있다 해도 알 수 없는 것이라는 회의주의(懷疑主義) 내지는 불가지론(不可知論)이라고 하였다. 그에 의하면 '세상의 철인(哲人)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주장만이 진리이고 다른 사람의 주장은 모두 오류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느 것이 진짜 진리인가? 진리란 결국 하나 밖에 없을 것인데 각자가 다 자기의 주장을 진리라고 하여도 모두 그러한 것은 주관적인 것이다. 유일의 객관적 진리가 인식되어질 수 없는 한 주관의 입장에서 서로 논쟁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며 그런 시시비비를 버리고 진실된 실천으로 향하는 것이 더욱 현명하다.'고 했다. 이 사람은 형이상학적인 모든 의문에 대하여 확실한 답을 주지 않고 애매한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에 '뻬장어처럼 미끄러워 잡기 어려운' 불가지론자이기도 했다. 산자야는 예를

들면 사람들이 사후의 세계에 대해 물으면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만일 당신이 사후의 세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사후의 세계가 존재한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와는 다르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그렇지 않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모든 대답이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그를 뻬장어 같은 궤변자라고 했던 것이다. 불가지론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기도 하지만 모든 것에 회의론을 가지고 객관적 진리를 얻을 수는 없다고 하는 태도는 그 자체로서 모순을 지니고 있었다. 객관적 진리라는 것이 없다는 그 말 또한 하나의 주관적

수행할 수가 없었던 모양이다. 산자야가 유명세는 떨치고 있었지만 바른 도를 찾아 나선 이들에게 산자야의 불가지론이 양이 차지 않았을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누구든지 먼저 참된 스승을 만나거나 진리를 들으면 나머지 한 사람에게도 반드시 알려 줄 것을 서로 약속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들은 마침내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사리푸트라와 목갈라나 부처님과 만나게 된 인연은 이렇다. 그것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라자가하(왕사성)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로 보인다. 나중에 부처님의 가장 뛰어난 제자가 된 사리푸트라와 목갈라나(Moggallāna, Maudgalyāyana:目犍連)는 앗사지 비구를 인연으로 왕사성에서 부처님과 만나게 된다. 앗사지(Assaji, 阿說示, 馬騰)는 바라나시의 녹야원에서 최초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아라한이 되었다. 그는 부처님께서 우루벨라를 거쳐 오시는 동안 부처님보다도 먼저 라자가하에 와 있었던 모양이다.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오신 것은 바라나시에서 다섯 비구와 야사 등의 제자들과 헤어져 지 약 반년 정도 뒤였다고 한다. 하루는 앗사지가 왕사성에서 탁발을 하고 있었는데 사리푸트라가 이를 보고 있었다. 앗사지는 깨달음을 얻어 이미 아라한이 되어 있었는데 탁발을 하며 거리를 다니는 모습이 아주 의젓했다. 의복도 단정하고 태도가 품위가 있었다.

## 유명한 사상이 산자야를 회의주의로 비판 절제와 품위, 앗사지 만나 부처님께 귀의



경전에서는 앗사지에 대하여 '나아가고 물러서고 앞을 보고 뒤를 보고 굽히고 펴는 것이 의젓하였고 눈을 땅을 향하였다. 이와 같이 그는 훌륭한 몸가짐을 갖추고 있었다.'고 묘사하고 있다. 당시 불교의 출가자만큼 여러 가지가 절제되고

품위가 있는 사문들은 드물었던 모양이다. 그러한 앗사지를 보고 사리불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한다. '세상에 아라한이 있다면, 아라한의 도를 갖춘 자가 있다면 바로 저 비구도 그 중의 한 분일 것이다. 그는 누구에게 출

가했으며 누구를 스승으로 모시고 누구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가를 물어봐야겠다.' 아마 그때까지도 사리불은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했던 것 같다.

### 제13회

# 불교총지종 경로법회

일 시 | 총기48년 9월 25일(수)~26일(목)

장 소 | 청송 대명리조트

## 부모님 열 가지 은혜

아이를 배워서 지키고 보호 해준 은혜  
해산함에 임하여 고통을 받으신 은혜  
자식을 낳고서야 근심을 잊으신 은혜  
쓴 건 삼키고 단 것은 뱉어 먹여준 은혜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 누이신 은혜  
젓먹이고 사랑으로 길러주신 은혜  
목욕세탁 더러움 씻어주신 은혜  
멀리 떠나면 근심 걱정하신 은혜  
자식을 위해서는 모진일 하신 은혜  
임중 때도 자식위해 근심하신 은혜

-부모은중경 중-

밀교연재

『밀교문화와 생활』(30)

# 중생의 마음과 밀교수행 ⑤



법경 정사 (밀교연구소장/ 법천사 주교/ 철학박사)

## 아수라심(阿修羅心)

『대일경소』에서 설하고 있는 중생의 60가지 마음 가운데 아수라심(阿修羅心), 용심(龍心), 인심(人心)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아수라는 육도(六道) 가운데 하나로서 원래 화를 잘 내고 성질이 포악해서 좋은 일이 있으면 뒤통을 놓기 좋아하는 동물이라고 한다. 이생에서 욕심 많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죽어서 환생한 축생이 아수라라고 한다. 이러한 아수라들이 모여서 놀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엉망진창이고 시끄럽기 그지없으며 난장판으로 만들고 만든다. 그러한 난장판을 흔히 아수라장이라고 한다. 중생의 마음이 그러하다면, 그것이 아수라심이 된다. 마음이 시끄럽고 심란하다면 그것이 바로 아수라심이다. 『대일경소』에서 아수라심을 이렇게 설하고 있다. “무엇을 아수라심이라 하는가? 그것은 즐겨 생사(生死)에 처하는 것을 말한다.” 고 하였다. 어찌해서 생사에 처하는 것

이 아수라심인가? 그것은 부처님의 근본교설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릇된 중생이 오직 쾌락만을 위하여 무명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 그에 따른 고통이 있게 된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를 12가지로 나열한 것이 바로 십이연기설(十二緣起說), 십이인연설(十二因緣說)이다. 즉 무명으로 인하여 생사 가운데 고통이 따르는데, 고통과 괴로움이 뒤범벅이 되어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아수라심인 것이다. 따라서 아수라심의 시작이 무명(無明)에 의한 것이오, 무명으로 인하여 생(生)·노(老)·사(死)라는 과정 속에서 고통과 괴로움으로 살아가게 되므로, 생사에 처한 것이 바로 아수라심인 것이다. 생사 가운데 무명과 쾌락만이 존재하는 마음이다. 그러나 생사 가운데 있게 되는 고통과 괴로움을 소멸하고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부처님께서 사성제(四聖諦)와 팔정도(八正道)로 말씀하셨다. 좀 더 간략하게 말하면, 지혜를 증득함으로써 고통과 괴로움을 없

## 지혜를 증득함으로써 고통과 괴로움을 없애 일체 무상 알아차리면 무명과 고를 여월 수

데에 있는 것이다. 근본교설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이다. 사성제와 팔정도 수행으로써 고(苦)를 여월 수 있기 때문이다. 『대일경소』에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만약 수행하는 사람에게 생사의 과보와 쾌락을 즐길 뿐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아수라의 마음임을 알아야 한다. 무상(無常)과 고(苦) 등을 관찰하는 것이 아수라의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이다.” 무상(無常)과 고(苦), 무아(無我)의 진리를 깨친다면, 그것이 곧 깨달음이고, 지혜이다.

## 용심(龍心)

중생에게는 용심(龍心)이라는 좋지 못한 마음이 있다. 용심(龍心)은 용(龍)의 마음이란 말로서 광대자재(廣大資財)를 품고 있는 마음이다. 용은

원래 여의주를 물고 있어 진귀한 보배와 재물을 마음껏 지니게 하는 상서로운 동물에 비유된다. 따라서 용심은 보물과 재물을 탐하는 마음이다. 재물을 탐하는 중생의 욕심을 용의 광대자재에 빗대어서 말하고 있다. 『대일경소』에서 용심(龍心)을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탐욕이 많고, 이를 싫어하는 생각이 없는 것이 바로 용취(龍趣)의 마음이다.” 용취(龍趣)는 용의 세계로서 탐욕심이 가득 한 세계, 마음을 나타낸 다. 이러한 용심을 없애는 길은 무엇인

가? 『대일경소』에서 이렇게 설하고 있다. “수행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 사람의 이익을 구하게 하는 것을 좋아하고, 출세간의 청정한 마음을 장애하게 한다. 적게 바라고 만족할 줄 알며, 무상(無常) 등을 사유하는 것이 그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다.” 세간적 성취에만 골몰하고 출세간의 청정을 멀리하게 하는 것이 용심이라는 것이다. 즉 재물에 대한 탐욕심이다. 그래서 소욕지족(少欲知足)을 강조하고 있다. 적은 것에 만족하고 욕심내지 않는 것이 용심을 다스리는 길이라고 한다. 재보(財寶)는 영원하지 않다. 항상 변하고 변한다. 영원불변하지 않는다. 이를 무상(無常)이라고 한다. 일체가 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린다면 무명(無明)과 고(苦)를 여월 수가 있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부정적으로 나타낸 말이다. 차별하고 분별하여 이해타산을 우선으로 하는 마음이다. 아주 계산적인 사람의 마음이다. 『대일경소』에서 인심(人心)을 이렇게 설하고 있다. “무엇을 사람이 마음(人心)이라 하는가? 남을 이롭게 하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다. 이른바 항상 이런 생각을 하는 것으로, ‘아무개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그에게 큰 이익을 얻게 하겠다. 아무개는 나에게 요약하지 않은 바가 있으니 앙갚음을 하리라’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람을 구별하고 재물과 이익을 취하려는 생각은 모두 인심(人心)이다.” 오로지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 마음을 말한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 수행이 필요하다. 스스로 마음 작용을 관찰하여 법의 이익을 구할 것이며, 분분하게 다른 연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마음 다스리는 방법이다.

## 인심(人心)

인심(人心)은 사람의 마음이란 뜻으로, 바로 중생심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정성준 교수의 후기밀교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초빙교수



## 야만따까 띠뜨라



의 순서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동안 기고했던 생기차제, 구경차제의 양수행은 부족하지만 실천의례를 먼저 다루

어 후기밀교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양 차제에 대한 연구의 완성 은 토대가 되었던 후기밀교경전을 이해 함으로써 완성된다. 인도 후기밀교본문은 제2의 삼장이라 일컬어질 정도로 오백여 년에 걸쳐 방대한 경전과 논서, 성취의례 들이 출현하였다. 불공삼장은 『십팔회지 귀』에서 『비밀집회판뜨라』를 비롯한 일부 후기밀교경전들을 광본 『금강정경』에 포함시켰다. 인도 후기밀교는 『금강정경』을 구성하는 경전군들의 역사이다. 최고의 진리를 다룬 경전이기에 때문에 ‘금강정(金剛頂)’이란 명칭을 부여하였다.

현교경전의 정점은 『화엄경』으로 경전은 비로자나여래 『일체지지』 신변을 설한다. 이에 대한 실천의례가 곧 『대일경』이다. 최소한 이러한 시각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대장게만다라는 현교의 모든 교학과 수행체계를 종자·수인·불형의 상징체계를 통해 집적(集積)시켰다. 대장게만다라

## 문수보살, 후기밀교 야만따까라는 분노존으로 등장 여섯 팔, 여섯 얼굴, 번뇌를 부수는 여섯 상징 법구

는 인도 불교수행의 혁명을 일으켰다. 보살수행으로서 문사수해(聞思修慧)의 유가행은 한생 내에 삼장의 섭렵이 불가능 한 현실을 진언문의 출현으로 해결한 것이다. 인도 후기밀교의 출현도 적집과 실용의 양면을 전제 받은 것이다. 후기밀교의 경계가 보이는 만다라는 진리의 인간 화이며 수행자는 이러한 본존과 제자로서 특별한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다.

인도 후기밀교시대에 출현한 많은 경계 에는 문수보살이 본존으로 모셔져 있다. 이것은 『화엄경』과 밀교의 뿌리 깊은 역사와 교단, 유교가 유행한 흔적이다. 후기 밀교시대에 보이는 본존의 특이한 유형은 분노존이다. 문수보살은 후기밀교시대에 야만따까(yamantaka, 'jigs byed)라는

분노존으로 등장한다. 분노존은 호법존 (dharmapala)이나 헤루까(heruka)의 별칭을 가지고 있다. 후기밀교는 중생의 본성에 감추어져 있는 심연의 번뇌를 드러 내어 불성으로 환원하는 특징을 보인다. 야만따까는 곧 문수보살의 후기밀교형 신 변이다. 야만따까는 중생이 가지고 있는 무명의 번뇌를 일깨워 문수보살의 지혜로 활성화한다. 그 과정의 역동적이며 적극

적인 의지가 문수보살의 분노존으로 출현 한 것이다.

야만따까는 다른 이름으로 ‘와즈라바이 라와(Vajrabhairava)’라는 분노존의 전통 을 세워 분노존계의 많은 경계로 출현하 고 티벳불교에서는 종파를 막론하고 모두 중시되며 울만다라(Ngor Mandalas)의 수집에서는 13만다라의 전통이 있을 정 도로 번성하였다. 야만따까와 와즈라바이 라와의 전통은 10세기 나란다대학의 라리 따와즈라(Lalitavajra)에 의해 시작된 것 으로 당시 나란다대학은 문수보살을 본존 으로 삼는 전통이 유행하였다. 라리따와 즈라는 비전을 통해 우디야나에서 지혜다 까니로부터 전수받은 인연을 계시 받았다고 전해진다. 이처럼 인도 후기밀교시대 에서 스승과 제자간의 비밀한 사자상승의 전통이 강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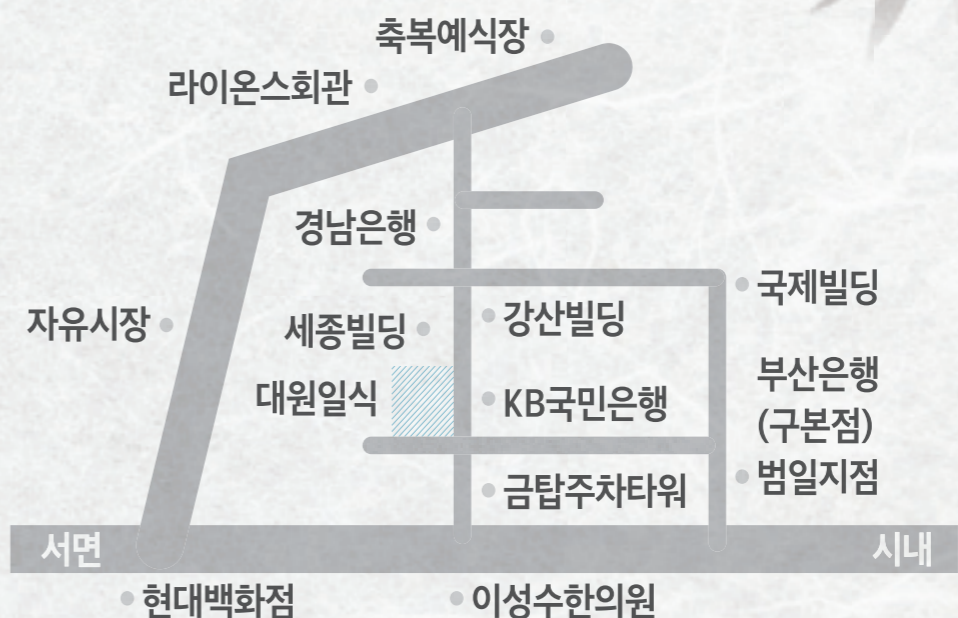
야만따까는 ‘야마(yama)를 살해한다 (antaka)’는 끔찍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야마는 곧 염라(閻羅)를 가리킨다. 『사자 의 서』에 따르면 중생은 사망한 후 49일간의 여정 끝에 내생을 결정하는 순간에 염라를 만난다. 염라는 중생을 삼계의 수레 에 잡아넣는 존재의 속박과 공포의 현상 화이다. 중생에게는 감당하기 어렵지만 석가모니보다는 사마(四魔) 가운데 염라, 즉 야마를 조복하고 부다가 되었다. 야만 따까는 불교수행자로 하여금 관념적인 수 행보다 죽음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경험하 고 극복하도록 유도한다. 야만따까는 여섯 다리와 여섯 팔, 여섯 얼굴로 이루어 져 있으며 손에는 번뇌를 부수는 여섯 상 징 법구가 들려져 있다. 얼굴은 물소의 모습 을 나타내는데 별존이나 13화신으로 나 타난다. 야만따까에 대한 실제 수행은 자 료로서 겐록빠의 경우 티켄첸생게(Tri Gyaltzen Senghe)의 별존수행이나, 룬똘 판디따(Lhundup Pandita)에 의한 13존 수행에 대한 주석이 전해진다.

## 법성사 교도

# 대원 일식요리 전문점

대표 지영심



전화 051-646-0035~6 | 010-6893-5179

주소 부산시 동구 범일2동 830-50



종합 동해중 소식

동해중학교 제1회 고교체험전 열다

“개인의 특기와 적성 효율적으로 찾아주자.”



동해중학교(교장:탁상달)에서는 지난 7월 12일 전교생이 참여하는 고교체험전을 개최하였다. 이번 고교체험전은 개교 이래 처음 열린 제 1회 행사로 부산의 부산인물학교고등학교를 비롯한 16개 고등학교가 함께 참여하여 전 교실에 학교별로 다양한 부스를 설치하여 특색 있는 진로

체험의 기회 및 학생들의 진로의사 결정 능력을 신장시키는 계기로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본교 선생님들에게는 진로교육에 대한 의지 함양 및 진로교육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보다 내실 있는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

동해중학교의 고교진로 체험전 행사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시교육청 보도 채널을 통한 방송이 되었으며, 동래교육청에서는 관리국장과 중등과장 및 담당 장학사가 직접 동해중을 찾아 새로운 시스템의 진로교육 프로그램 및 진로행사에 대해 격려 및 성원을 보내주었다.

“특히 체험보고서 작성이 우수한 학생들은 특별히 학교장상도 수여할 계획”이라며, 행사보다 행사의 내실을 다지는데 주력했음을 나타냈다.

특히 행사에는 관심 있는 대다수 학부모도 참석하여, 특목고와 마이스터고 및 일반고, 전문계고와 특성화고 등의 정보를 접하면서 다양한 정보수집 및 행사 관

진로탐색 통한 진로 의사 자기 결정권 향상 일반고, 전문계고와 특성화고 정보 공유

고교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한 진학진로부장인 김연자 교사는 “학생들이 흥미 위주로 참여하는 형식적인 진로체험행사가 아닌 보다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다양한 부스를 탐방하고 각 부스별 선생님들로부터 확인서를 확인 받고 체험보고서를 작성케 하였다.” 취지를 밝히고,

련 의견을 전해주시기도 하였다.

탁상달 교장은 “앞으로도 이 같은 진로체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학생 개인의 특기와 적성을 효율적으로 찾는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겠다.”며 학생들을 위한 진로교육 운영방안을 설명했다.

불교종단협, MBC 규탄 성명서 발표 “불교 폄훼, 가짜뉴스 즉각 중단하라.”

한국불교계를 대표하는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원행스님)29개 회원종단 일동은 7월 11일 불기 2563(2019)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최근 공영방송 MBC의 불교 폄훼 보도행위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회장 원행 스님은 기초 발제를 통해 “2018년과 올해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불교 폄훼 뉴스를 보도했고, 얼마전에도 행사부와 자부담으로 건축한 조계사와 봉은사의 일부 건물을 템플스테이 예산으로 건립했다고 잘못된 보도를 했다.”며 “언론중재위 제소도 고려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회원 종단 스님들께서도 이번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이사회는 이와 관련 회원 종단 명의로 MBC를 강력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한국불교 29개 회원종단 MBC의 불교계 폄훼 보도 행위 규탄 성명서

MBC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며 의도적인 불교계 폄훼 보도 행위를 규탄한다!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29개 회원종단 일동은 불기 2563(2019)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최근 공영방송 MBC의 불교 폄훼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탄합니다.

MBC는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사이며 언론사입니다. 이는 MBC가 공정성과 공평성을 생명으로 여기는 책무를 지니고 있는 기관임을 의미합니다.

지난 7월 8일(월) MBC는 뉴스데스크에서 사찰의 건물 용도와 관련한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보도는 기본적인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과 냉정하고 객관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하기보다는, 비뚤어진 시각과 과장된 논리로 구성된 것이므로 깊은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MBC는 불교계의 가장 큰 행사인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거의 매년 불교계를 폄훼하는 보도를 일삼는 것은 불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려는 다분히 의도적인 행태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공정 공영의 선의보다는 불교계에 대한 악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일부 인사들의 편협한 태도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불교계를 의도적으로 폄훼하는 것이 정의인양 포장하고픈 잘못된 언론관에 기인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이러한 MBC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할 경우 매우 중대한 결단을 할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불기 2563(2019)년 7월 12일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원종단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총지중, 대한불교전태종, 대한불교진각종, 대한불교관음종, 한국불교태고종, 대한불교대각종, 대한불교삼론종, 대한불교보문종, (재)대한불교원효종, 대한불교일승종, 대한불교범화종, (재)대한불교일봉선교종, 대한불교총화종, 대한불교용화종, 대한불교대승종, (사)대승불교본원종, 한국불교미륵종, 한국불교여래종, 대한불교원용종, (사)대한불교조동종, 보국불교염불종, 대한불교법상종, 한국불교법륜종, 대한불교진언종, 대한불교정토종, 대한불교법연종, 대한불교화엄종, 대한불교미타종

모든 중독의 해법은 '명상 디톡스'

지난달 남자 아이돌 그룹 멤버의 마약 투약 의혹이 세상을 시끄럽게 했다. 어느 때보다 유행어 상반기는 유독 마약 관련 이슈가 많은 것 같다. 마약은 둘째 치더라도 자극의 우리 사회는 분명 중독이라는 현상에 잠식되어 있다. 스마트폰 중독부터 게임, 도박 등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다양해서 대처방안 마련도 시급하다.

에인 업장은 또다시 끊임없는 부딪힘으로 삶을 과격으로 몰아간다. 그렇다며 감각적 욕망에 대한 집착인 중독을 벗어나게 하는 구체적 방법인 것이다. 요즈음 해독이라는 의미를 가진 '디톡스'라는 용어가 유행하는데, 중

능력의 문을 수호하고 깨어있음에 전념하는 깨달음 요소 활성화 훈련이, 옮겨진 집착인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는 구체적 방법인 것이다. 요즈음 해독이라는 의미를 가진 '디톡스'라는 용어가 유행하는데, 중

라 때 어느 날 업양 스님이 조주 선사를 친견한다. 이 자리에서 업양 스님은 대뜸 '한 물건도 갖고 오지 않았을 때는 어찌 합니까?' 라고 조주 선사에게 물었다. 그러자 조주 선사는 '방하착(놓아라)'이라고 답한다. 여기서 '방하착'은 마음속에 있는 번뇌 갈등 집착 원망 등을 훌훌 털어버려 버려 버리는 것이다. 즉 마음 디톡스를 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먼저 꼭 쥐고 있던 것을 놓아 텅텅 비우는 것이다.

마약 이슈 증가...스마트폰·게임 등 중독 현상 만연 명상으로 감각적 욕망 조절하면 중독 원인 제거돼

탐욕의 빛바랜, 소멸을 의지하고 철저한 버림으로 기술이며 총만하고 광대하고 무량하고 원한 없고 악의 없는 마음챙김·법의 간택·정진·희열·고요함·삼매·평정심'이라는 7가지 깨달음의 요소를 개발해, 전에 미처 부수지 못하고 쪼개버리지 못한 중독의 원인들을 과감히 부수어 버리라고 주문한다.

독에 물든 몸과 마음을 해독하기 위해서는 명상을 대표 디톡스로 활성화시켜 으스스한 중독의 시대를 이만 종결시켰으면 한다.

디톡스의 과정은 단순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버리거다. 생활 습관 속에 남아있는 집착을 버리듯 마음 속의 망상을 버리는 것이 시작이다. 좋은 것으로 채우기 보다 마음의 탐심을 버려야 한다. 집착의 독소는 마음에 쌓여 있으면 부정적인 마음으로 변한다.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가시를 쏘게 된다. '마음 디톡스'를 훈련해 우리 마음의 집착과 중독을 날려 버리자

명상 연구를 위한 일반 모형에 의하면, 중독 현상을 보이는 모집단을 대상으로 명상훈련을 꾸준히 시키면 행복과 자유라는 변화가 일어난다. 경전에 언급된 감각

마음 디톡스와 관련해서 선종의 방하착(放下着) 이야기가 유명하다. 중국 당나

<김주일=현대불교신문 편집국장>

불교총지중사회복지재단 후원에 감사합니다. 6월 21일 ~ 7월 20일까지.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복지사업에 소중한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지로번호: 7668610, 우리은행: 122-177171-13-104, 예금주: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중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Table with 4 columns: Donor Name, Amount, Date, and Total. Lists various donors and their contributions to the Buddhist Welfare Foundation.



# 여름이 가고, 가을이 드는 '처서'

정각사 남혜 정사



'말후'에는 곡식이 익어간다고 기록되어 있다.

처서가 지나면 따가운 햇볕이 조금씩 누그러져 풀이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 그래서 농촌에서는 주로 논두렁의 풀을 꺾거나 산소를 찾아가 벌초를 한다. 음력으로 추석을 앞두고 있어 이 무렵에 벌초를 해야 추석 성묘까지 산소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다. 선조들은 습도가 높은 여름에 젖은 옷이나 책을 음식에 말리거나 햇볕에 말리는 일, "포쇄"를 처서에 했다고 전해진다. 이때 부녀자들은 옷을, 선비들은 책을, 농부는 곡식을 햇볕에 말렸다고 한다. 한편, "처서가 지나면 모기도 입이 뻐뻐어진다."는 말처럼 처서의 서늘함으로 파리, 모기가 극성을 부리는 것도 사라지고 귀뚜라미가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한다. 또 이 무렵은 음력 7월 15일 백중의 호미씻이도 끝나는 시기여서 농사철 중에 비교적 한가한 때이기도 하다. 그래서 "어정 칠월 건들 팔월"이란 말도 한다. 어정거리면서 칠월

을 보내고 건들거리면서 팔월을 보낸다는 말인데, 다른 때보다 그만큼 한가한 농사철이라는 것을 재미있게 표현한 말이다. 처서 무렵은 벼 이삭이 패는 등 오곡이 마지막 열매를 맺는 때로, 햇볕이 강하고 쾌청해야 수확이 좋아진다. 이처럼 농사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처서에는 풍흉을 점치는 날씨 점을 치곤했는데, 처서에 비가 내리면 곡식이 제대로 여물지 않아 흉년이 든다고 여기기도 했다. 처서에 먹어야 할 음식으로는 여름 더위로 지친 원기를 회복시켜주는 추어탕과 제철인 애호박을 넣어 열기를 보충해주는 애호박 칼국수, 열대와 싸우느라 축적된 만성피로를 해소해주는 복숭아 등이 좋다. 가을은 늙은 호박이 제철이다. 호박은 우리 몸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함유하고 있는 영양덩어리로 식이섬유가 풍부해 다이어트에 좋고 변비 예방에도 아주 좋다. 특히 처서에는 애호박과 고추를 썰어 넣고 칼국수를 끓여먹는 풍습이 오래전부터 내려오고 있는데 여름에 찬 음식을 많이 먹었다면, 환절기를 맞아 뜨거운 음식인 애호박 칼국수로 속을 채운다는 의미로 칼국수를 먹었다. 애호박 속에는 비타민 A가 풍부하게 들어있으며, 식이섬유도 함유되어 있어 소화에도 좋다고 한다.

처서는 "더위(暑)가 그친다(處)."는 뜻으로 처서가 지나면 여름 더위도 가시고 아침저녁으로 신선한 기운을 느끼게 되는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 24절기 중 열네 번째 절기에 해당하는 처서는 입추와 백로 사이에 들며, 태양이 황경 150도에 달할 시점으로 양력 8월 23일, 음력 7월 15일 무렵이다. 흔히 처서는 "땅에서는 귀뚜라미 등에 업혀오고, 하늘에서는 뭉개구름 타고 온다."는 말이 전해질 정도로 여름이 가고 가을이 드는 계절임을 뜻하는데, 이런 자연의 변화를 「고려사」에서는 처서의 15일간을 5일씩 3분하여 첫 5일 간인 '초후'에는 매가 새를 잡아 제를 지내고, 둘째 5일 간인 '차후'에는 천지에 가을 기운이 들며, 셋째 5일 간인

로 추석을 앞두고 있어 이 무렵에 벌초를 해야 추석 성묘까지 산소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다. 선조들은 습도가 높은 여름에 젖은 옷이나 책을 음식에 말리거나 햇볕에 말리는 일, "포쇄"를 처서에 했다고 전해진다. 이때 부녀자들은 옷을, 선비들은 책을, 농부는 곡식을 햇볕에 말렸다고 한다. 한편, "처서가 지나면 모기도 입이 뻐뻐어진다."는 말처럼 처서의 서늘함으로 파리, 모기가 극성을 부리는 것도 사라지고 귀뚜라미가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한다. 또 이 무렵은 음력 7월 15일 백중의 호미씻이도 끝나는 시기여서 농사철 중에 비교적 한가한 때이기도 하다. 그래서 "어정 칠월 건들 팔월"이란 말도 한다. 어정거리면서 칠월

## 불교와 드라마

## 별거 없는 일상의 소중함을 일깨우다 눈이 부시게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쾅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콤한 바람, 해질 무렵 우리나는 노을의 뉘새,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지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였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지난 2019년 백상예술대상 TV부문 대상을 수상한 김혜자 씨의 수상소감입니다. JTBC 드라마 <눈이 부시게>에 나오는 대사이기도 합니다. 김혜자 씨는 이 드라마에서 갑자기 늘어버린 김혜자 역을 맡아 몸은 노인이지만 마음은 25살 정춘을 연기했습니다. 김혜자 씨는 우리나라 대표 배우답게 그 역할을 훌륭하게 소화했고, 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입니다.

는 콘텐트뿐입니다. '자고 있는 할머니 안 깨우고 청양고추 먹기', '48시간 잠 자기' 등 이런 거 하면서 소중한 젊은 시간을 낭비합니다. '짜장면 10그릇 먹기' 먹방을 위해서는 돈도 없으면서 무턱대고 전 여자친구네 가게서 짜장면을 열 그릇이나 시켰는데 한 그릇 밖에 먹을 수 없어 나머지 아홉 그릇은 반품 하려고 합니다. 불어터진 짜장면이 반품 안 된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과거에 자신을 좋아했던 여자 친구의 오래된 감정을 소환해 거기에 기대를 걸어봅니다. 온갖 맛있는 표정은 다 지어보았지만 돌아오는 건 여자 친구의 주먹뿐입니다. 이어 여자 친구와 찍은 학생 때의 사진이 화면을 채우면서 과거의 멋있었던 시간과 지금의 찌질한 일상이 대비되면서 서글픔을 느끼게 합니다.

혜자 또한 아나운서 시험을 준비하다 포기하고, 하는 일이 라곤 미용실 하는 엄마를 도와 손님들 머리를 감기거나 빈둥거리는 것이 고작입니다. 선배 소개로 성인영화 더빙 알바를 마치고 와서는 심란해서 잠을 못 이루다가 술집 가서는,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아나운서 꿈꾼 걸 후회한다. 그 꿈이 아니었다면 더 행복했을 것 같다. 이런 말들을 늘어놓으면 슬주정을 합니다. 꿈은 일찌감치 포기했지만 자신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는 부모님을 실망시킬 수 없어서 아무 말도 못한 채 백수 동지인 오빠와 하루 종일 시시한 말 싸움을 하고, 엄마 눈치 보가며 밥 비벼 먹는 것이 그녀의 한심하기만 한 일상입니다.

친구들 또한 처지가 다르지 않습니다. 한 친구는 부모님이 운영하는 중국집에서 짜장면 배달을 하고, 다른 친구는 편의점에서 알바 하면서 결코 이를 수 없을 것 같은 가수 꿈을 부여잡고 있으며, 혜자의 로맨스 상대인 준하는 혜자나 영수와 달리 스펙이 좋은데

도 불구하고 그 또한 꿈을 이루지 못한 채 홍보관에서 노인들에게 사기를 치면서 젊음을 낭비합니다. 한심하게만 보였던 일상이었는데 그것이 축복이었다는 것을 혜자가 아빠를 살리기 위해서 시계를 너무 많이 돌림으로써 갑자기 늘어버린 후 깨닫게 됩니다. 혜자는 그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기세입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 왜냐면 혜자가 그토록 돌아가고 싶어 하는



25살은 사실은 혜자의 과거기 때문입니다. 지금 늘어버린 현실이 판타지가 아니라 25살 혜자가 치매 노인 혜자가 꿈꾸는 환상이었던 것입니다.

방송국 아나운서로 잘나가는 후배를 보면서, 종군기자가 돼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펴는 선배를 보면서 자신의 일상을 부정했던 그 25살이 사실은 가장 완벽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그 자체만으로도 빛나고 아름다운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현재가 축복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을 갖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드라마는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일깨웠습니다.



## 겨울 광고산 딱다구리

최정용

적막한 법당 높은 곳에 앉아  
긴 겨울 푹타 두드리며  
봄날 해탈위해 정진하는 너는  
신라 왕족의 후예, 멸문지손  
애비 죽고 비구니 된 애미 그리며 떠돌  
다떠들다  
겨울 광고산에서 거죽 벗은  
비운의 동자승  
과도과도 답이 없는 고목처럼  
애미는 입적한지 오래

몇 번의 윤회와  
몇 날의 수행을 거쳐야  
피안에 이를까 이를 수 있을까 생각도  
있고  
따다따다따다  
엄마엄마엄마  
달을듯달을듯  
먼 기억,  
이 문 열리면  
엄마 계실까

번뇌만 깊어지는  
겨울 광고법당  
독경소리 공허한  
그 아래에서 서서  
나는 합장만 보낼 뿐  
그대 날아가라,  
돌아오지 말고

강원도 속초 출생 / 2014년 서정시학 여름호 등단 / 현, 경기신문 논설위원

# 맛찬들 3.5 노원점 왕소금구이

예약전화 02-938-7008

위치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368-9

영업시간 11:00 - 01:00

# 인간방생 화합의 야단법석 호국안민기원대법회

## 지난 16일, 한마음 한뜻 스승, 교도 한자리

7월 16일 오전 11시 전국적으로 봉행된 총기 48년 하반기 호국안민대법회는 대체로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불교총지중의 전통적 수행법에 맞도록 여법하게 법회를 열고, 2부에서는 각 교구별로 교도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사부대중이 화합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통신원들이 보내준 사진과 소식을 통해 호국안민기원대법회를 살펴본다.

<편집자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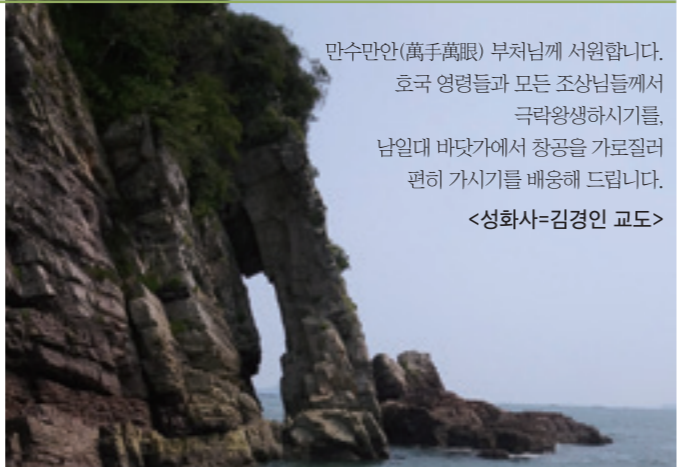
서울경인교구는 2부에 각 사원별로 준비해온 장기자랑을 하였습니다. 어느 해 보다 열심히 준비해오셨습니다.

<최혜선=총지사 통신원>



부산.경남합창단의 음성공양으로 '자비방생의 노래', '마음이 부처라면'과 다함께 창고절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정각사=한미옥 통신원>



만수만안(萬手萬眼) 부처님께 서원합니다.  
호국 영령들과 모든 조상님들께서  
극락왕생하시기를,  
남일대 바닷가에서 창공을 가로질러  
편히 가시기를 배움해 드립니다.  
<성화사=김경인 교도>



교도 중에 가장 연로하신 백원사 조정선 노보살님이 함께 해주셔서 기뻐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만보사=정덕순 통신원>



# 소통하는 통신원,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통신원

## 실지사, 부림회 회장 팔순 축하 법회



실지사(주교: 덕광 정사)에서는 지난 7월 7일 현 부림회 회장 보경(진전대일) 각자의 팔순 축하 법회를 열었다. 평소 사원 일에 출선수범 모범을 보이며, 교도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는 부림회 회장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부림회와 신정회가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잔치를 열었다.

<실지사=보현 전수>

## 수인회, '김장 나누기' 기금마련 축제 참가



수인사 수인회는 겨울 '김장 김치 나누기 행사' 기금마련을 위한 '검은돌장어축제'에 7월 26일부터 28까지 3일간 참가했다. 수익금은 독고노인, 생활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분들께 김장김치를 무료로 나누어 주는 기금으로 사용된다. 지난해는 350포기를 김장해 나누어 주었다.

<수인사=법일 정사>

## 경전에 근거한 부처님 참고서



새롭게 열린다  
붓다의 시대

김재영 저  
동쪽나라  
20,000원

이 책은 '붓다의 불교' 시리즈 마지막 제3부이다. 1부 '화엄코리아(2017년)', 2부 '붓다의 일생 우리의 일생(2018년)'에 이은, 붓다\_스터디, 이룸 그대로 부처님을 공부하는 교재다. 모든 내용은 경전에 근거하고, 불교학적 기초에 입각해서 서술되고 있다. 또 대중들이 함께 돌아앉아 발표하고 토론하고 대화하거나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평이하게 일상적 체험에 근거하여 참고문헌과 함께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부처님의 삶과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싶다면 책상 앞에 한권쯤은 놓아 둘만하다. 필자는 서울대학교 사범대에서 역사학을 전공, 1970년 동덕여고에서 불교학생회 창립을 시작으로, 50년 간 '우리도 부처님 같이(1987년, 불일출판사)' 가치를 내세우며, 한국불교부흥운동을 전개해왔다. 1984년 이래 현재까지 동방불교대학에서 '현대포교론' 강의 중이다.

## 대구경북지회 회장단, 교구사원 간담회



신임  
황월분 지회장

대구경북지회 새 임원진과 교구 사원 신정회 회장 간담회가 지난 7월 17일 오후 2시 영천 단음사(주교: 수현 정사)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임 황월분 지회장(단음사), 황갑선 부회장(수인사), 윤복자 부회장(건화사), 이귀선(수인사) 총무가 참석하여, 대구경북지회 운영방침과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수계사=현일 정사>

## 총지스케치

김홍균 작가  
총지사 교도

### 8.15 광복



NO  
BOYCOTT JAPAN  
사지 않습니다  
가치 않습니다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 잠원햇살어린이집

- 교육 배려 자율 창의
- 환경 안정적 문화함
- 교사 사랑 보람 행복

# 부산 포교의 중심지 법성사

8월 초 완공 이후 분양예정

법성빌딩(가칭)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지하철 1호선(부산역) 3분거리
- 부산항바다, 남항대교 조망
- 인근 관광명소 다수
- 인근 우수학교  
(부산고등학교, 부산중학교)
- 안전한 치안  
(초량지구대1분거리)
- 편리한 생활권  
(초량시장1분거리, 대형마트1분거리,  
롯데백화점 지하철로 2정거장)
- 입주민전용 헬스장, 세탁실
- 프리미엄급 옵션 제공  
한샘키친시스템  
LG휘센스마트천장형에어컨  
친환경동화자연마루시공  
실크벽지  
불박이장  
LG공기정화시스템(전열교환기)  
내진설계
- 옥상하늘정원

아파트 | 23세대 (2Type)

오피스텔 | 34호 (3Type)

### 법성빌딩

지번주소  
부산시 동구 초량동 422-2

도로명주소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59-1



문의 051-468-7164